

科表 참고서 『表式』 연구*

- 고려대 신암문고본을 중심으로 -

이 미 진**

< 目 次 >

| | |
|------------------------|-------------------|
| I. 들어가며 | IV. 『表式』 소재 작품 양상 |
| II. 고려대 중앙도서관 科表 자료 개괄 | 1. 특정 이미지의 대비 |
| III. 『表式』의 구성상의 특징 | 2. 특정 이미지의 부각 |
| 1. 통일성보다 효율성 추구 | V. 나가며 |
| 2. 후반 단락의 투식을 풍부하게 제시 | |

< 국문 초록 >

본고는 고려대 중앙도서관 소장 신암문고본 『表式』의 구성과, 소재 작품 양상을 살펴 조선 시대 科表 참고서의 한 단면과 조선 과표 작성의 실재를 파악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과표는 科試 文科의 初·覆試 中場과 최종 관문인 殿試에서 科策과 더불어 가장 많이 시험된 문체이며, 泮試나 重試 및 月課에서도 자주 출제되었다. 또한 과표는 다른 문체보다 취득 점수를 두 배로 계산할 만큼 중요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며 (NRF-2022S1A5C2A02093644), 2023년 한국한문고전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한 것이다.

**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연구교수 / leemijin@korea.ac.kr

하게 다뤄졌기에, 과거 응시자들은 합격을 위해 젊은 시절부터 과표 수련에 몰두했다. 이처럼 과시에서 과표는 매우 비중 있는 과목이었으며, 당대 과거 응시자에게 과표 연마는 시험의 당락을 결정짓는 관건이었다고 볼 수 있다. 고려대 중앙도서관에 소장된 255종의 과시 관련 자료 중 과표 참고서는 총 12종이었으며, 그중에서도 『表式』은 다른 과표 참고서와 차별되는 특징이 있다.

구성을 살펴본 결과, 『表式』은 출제 비중이 높은 순서대로 과표의 세부 문제별 작법을 실었으며, 비슷한 의미의 글자를 수험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항목자식도 실었다. 또한 科次 9등급 이상의 작품을 위주로 실어 수험자가 시험에 효과적으로 대비하도록 했다. 이뿐 아니라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한 허두의 투식을 오히려 간소화하고, 이외의 투식을 더 풍부하게 제시하여 수험생이 실제 시험에서 변별력을 낼 수 있도록 했다. 이는 『表式』이 하나의 서적으로서 통일성을 추구했다기보다, 수험생의 편리성과 효율성에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그간의 과표 연구에서 간과되었던 작품 양상도 살폈다. 그 결과, 『表式』에 실린 작품은 특정 이미지를 대구 안에서 대비시켜 작품 속 상황을 극적으로 재연하고 주제를 강조했다. 또한, 소리나 역사 인물 등 특정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등장시켜 이를 부각함으로써 작품의 완결성을 꾀하고 작자의 심정을 대변하며, 주제를 설득력 있게 제시했다.

【주제어】 科試, 科文, 科表, 科表 참고서, 表式

I. 들어가며

表란, 奏議체 산문의 일종으로 일의 단서를 밝혀 윗사람에게 고하는 글이다.¹⁾ 신하가 황제에게 변려문의 형식으로 올리는 글이며, 疎나 啓와 달리 어떤 의례적 사안에 대한 신하의 내면 및 감정을 드러내는 글이다. 科擧 시험이라는 특정한 맥락에서 작성된 표는 일반적으로 科表라고 칭하여 일반 표문과 구분한다. 조선의 과표는 일반 표문과 달리 일정하게 변

1) 심경호(2013), 606면.

형된 형식으로 지어야 했다. 예를 들면, 제목은 擬-왕조 명칭-표문을 올리는 신하 이름-표의 세부 문체명-사안-表의 형식이며, 주로 중국 역사 상황이 설정되고, 그에 따라 특정 인물의 입을 빌려 하례나 청탁 등의 사안을 왕에게 고하는 것이다.²⁾

과표는 科試 文科의 初·覆試 中場과 최종 관문인 殿試에서 科策과 더불어 가장 많이 시험된 문체이며, 성균관에서 치르는 泮試, 이미 관료가 된 문신을 대상으로 한 重試 및 月課에서도 자주 출제되었다.³⁾ 또한 과표는 다른 과문 문체보다 취득 점수를 두 배로 계산할 만큼 중요하게 다뤄졌기에,⁴⁾ 과거 응시자들은 합격을 위해 젊은 시절부터 과표 수련에 몰두했다.⁵⁾ 이처럼 과시에서 과표는 매우 비중 있는 과목이었으며, 당대 과거 응시자에게 과표 연마는 시험의 당락을 결정짓는 관건이었다고 볼 수 있다.

과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이병혁(1987)이 과표의 성립과 연혁, 문체별 형식을 정립한 이래, 정경주(2013)가 이를 심화하여 문체별 과표의 단락 구성과 특징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힘입어 이상욱(2015)은 실제 작품을 분석하여 과문의 대표 문체인 詩·賦·表·策의 형식 규정과 역사적 변화 양상을 규명했다. 특히 이상욱(2017)은 여러 과시 참고서를 검토하여 이병혁과 정경주가 제시한 과표의 문체 형식과 특성을 재고하고, 조선 후기 과표의 程式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박선이(2022)는 이전의 과표 연구가 형식적인 측면에만 집중된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과표의 형식과 아울러 당대의 관련 논의와 과표 학습의 전범, 과표의 실제 작품 양상을 폭넓게 살펴보았다. 위 연구들은 필자가 과표의 시기별 정식과 그 특징을 파악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⁶⁾

2) 이상욱(2015), 117면.

3) 이상욱(2015), 115면.

4) 『科舉事目』, “一. 製述分數, 三下爲一分計定. 初試, 表·箋倍畫, 策則講經後倍畫.”

5) 이의현, 『陶谷集』 권28, 『陶峽叢說』, 『한국문집총간』 181, 438면, “我國人最重科業, 雖文詞超羣者, 無不折入於科業, 所製惟表·策而已. (중략) 象村文才較倫, 年未十歲, 已大成. 早孤, 育於外家, 卽宋麒壽家也. 宋家專尚科業, 常使習作表·策, 不製他文. 以此象村弱冠登第, 而所作表·策, 已至累數百首, 爲場屋老儒.”

아울러 다양한 기관에 소장된 과표 참고서를 발굴하여 당대 과표 학습의 과정과 전범을 밝힌 연구도 있다. 앞서 말한 이상욱(2017)은 국립중앙도서관과 장서각에 소장된 과표 참고서를 통해 조선 후기 과표 글쓰기 방식의 특징을 논하고, 조선 후기 과표의 정식을 규명했다. 박선이(2019)는 하버드 예칭도서관과 장서각에 소장된 조선 후기 과문선집인 『儷林』과 『東儷文』을 통해 과표 작품의 양상과 특징을 밝혔다.⁷⁾ 또한 박선이(2022b)는 고려대 중앙도서관 소장 과표 참고서인 『表東人』의 체제 및 구성을 살펴 보면서, 이 문헌이 역사 인물 및 사건과 관련한 고사를 여러 대구로 조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양상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소개했다. 과표가 주로 중국 역사 인물 및 고사를 활용하여 창작되는 문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表東人』은 역사 고사를 과표 작법에 활용하는 실제와 조선 후기 과표가 정형화되는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다.⁸⁾ 송채은(2022)은 고려대 중앙도서관 소장 과표 참고서인 『東林』을 발굴하고 그 속에 기재된 작품 현황을 파악하여, 이것이 과표 선집 중에서는 보기 드문 16~17세기 문헌이라는 점과, 모종의 이유로 작품의 앞뒤 내용이 반대로 묶여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⁹⁾ 위 연구들은 과표와 관련한 특정 문헌에 대한 연구이면서, 과표 창작의 실제와 시기별 특징을 도출했다.

그러나 일정한 형식에 맞게 과표를 짓는 것이 시험의 당락을 결정했기 때문에 선행 연구에서는 과표의 형식적인 측면에만 집중했다. 과표 참고서에 수록된 다양한 작품들은 주로 登科한 답안으로서, 대개 시험 일자와 종류, 등수와 함께 기재되기 때문에 형식뿐 아니라 그 내용과 작품 양상까지 살펴본다면 당대 과표 작성의 실재를 파악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도 일부 이를 시도하긴 했지만, 앞으로 더 많은 연구를 통해 그 양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

6) 이병혁(1987); 정경주(2013); 이상욱(2015; 2017); 박선이(2022a).

7) 박선이(2019).

8) 박선이(2022b).

9) 송채은(2022).

따라서 본고에서는 고려대 중앙도서관 소장 과표 참고서 중 하나인 『表式』의 형식과 내용을 살펴 기존 과표 참고서 연구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일별해 본 결과, 고려대 중앙도서관에 소장된 과시 자료는 총 255종이다. 필자가 특히 고려대 중앙도서관 소장 과시 자료에 집중한 이유는 그 양이 방대하기 때문이다. 또한, 앞서 노요한 외 3인(2022)이 고려대 도서관 소장 과시 자료를 소개했는데,¹⁰⁾ 편의상 科詩·科賦·四書疑·五經義·科策별로 문헌을 살펴보았기에 과표 참고서의 전체적인 개괄과 개별 문헌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필자는 본고를 통해 그 부족한 면을 보충하고자 한다.

Ⅱ. 고려대 중앙도서관 科表 자료 개괄

고려대 중앙도서관에 소장된 과시 참고서는 총 255종이며, 그중 과표 참고서는 총 12종이다. 각각의 특징과 『表式』이 지니는 차별점 등을 살펴 보기로 하자.

<표 1> 고려대 중앙도서관 소장 과표 관련 자료

| 연번 | 청구기호 | 서명 | 종류 | 형태사항 |
|----|-------------|------|--------|-------------------------------------|
| 1 | 만송 D5 A28 | 鳴波 | 선집류 | 1冊：無罫, 10行 字數不定；24.3 x 16.5 cm. |
| 2 | 만송 D5 A36 | 東儷 | 선집류 | 1冊：無罫, 14行不定字；21.5 x 12.3 cm. |
| 3 | 만송 D5 A125 | 表東人 | 유초류 | 1冊：無罫, 16행 자수부정, 26.3 x 19.1 cm. |
| 4 | 만송 D5 A176 | 賦抄 | 선집류 | 1冊：無罫, 行字數不定, 28.2 x 16.1 cm. |
| 5 | 만송 D5 A185 | 儷文格式 | 작법/선집류 | 1冊：無罫, 行자수부정, 20.8 x 30.0 cm. |
| 6 | 만송 D5 A191 | 東林 | 선집류 | 1冊：無罫, 12행 26자, 22.4 x 14.2 cm |
| 7 | 대학원 D5 A1 | 寫表式 | 기타 | 2冊：無罫, 2행 자수부정, 40.1 x 15.0 cm |
| 8 | 대학원 D5 A3 | 表東 | 선집류 | 不分卷5冊：12행 자수부정; 28.5 x 17.3 cm. |
| 9 | 대학원 D5 A229 | 儷體 | 선집류 | 零本 1冊(全8冊)：12행 자수부정, 22.8 x 12.3 cm |
| 10 | 대학원 D5 A230 | 龍門 | 선집류 | 8冊(全12冊)：14행 자수부정, 20.5 x 13.3 cm. |

10) 노요한 외 3인(2022).

| 연번 | 청구기호 | 서명 | 종류 | 형태사항 |
|----|-------------|----|--------|--|
| 11 | 대학원 D5 A231 | 科文 | 선집류 | 3冊(전7책 중 2, 3, 6책) : 12행 자수부정, 19.2 x 12.6 cm. |
| 12 | 신암 D5 A18 | 表式 | 작법/선집류 | 1冊 : 無罫 ; 26.1 x 15.9 cm. |

과표 참고서란 과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작법과 참고 문구들을 제시한 문헌을 말한다. 이는 과표 종류별로 글쓰기 틀을 설명한 작법류, 그 틀에 채워지는 실질적 내용을 암기하거나 검색하기 위한 유초류, 실제 시험에 제출한 답안이나 습작한 작품 중 모범적인 사례를 가려 모아놓은 선집류로 나눌 수 있다.¹¹⁾ 이 특성이 혼합된 경우도 있다.

고려대 소장 과표 참고서에는 선집류가 가장 많다. 『鳴波』·『東儷』·『賦抄』·『東林』·『表東』·『儷體』·『龍門』은 조선 후기 과표 답안을 수록했고, 이 중 『東儷』와 『賦抄』는 약 90편의 답안을 모아 놓았다. 여기에는 구체적인 시험 종류와 답안 작성자의 성명 및 성적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었다. 특히 이 문헌들은 같은 시제의 다른 답안이 다수 수록되어 있어 수험자별, 성적별로 비교가 가능하다. 『龍門』은 영조 대부터 순조 대까지의 과표 답안을 수록했으며, 주목으로 비점을 찍었고 시험 종류와 작성자의 성명, 성적까지 자세히 기재했다. 고려대 소장 자료 중 『龍門』은 가장 많은 분량의 과표 답안이 실려 있다.

선집류 중 『科文』은 총 3책으로 이뤄져 있는데 각각 夏·周·宋나라와 관련된 과표 작품을 모아 놓았다. 유일하게 유초류인 『表東人』은 漢 高祖부터 宋 度宗까지 역대 중국 왕조의 황제와 관련된 과표 구절을 모았다.¹²⁾ 『寫表式』은 과표의 형식을 실제 시권지 크기의 종이에 정사하여 첩으로 제작했다는 점에서 특이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고려대 소장 과표 참고서 중에서 『儷文格式』과 『表式』은 과표의 세부 문체인 請表·謝表·賀表·進表·辭表·乞表의 작법과,¹³⁾ 상항별(褒嘉·褒獎·封

11) 이상욱은 과표 참고서를 작법류와 유초류로 나눈 바 있다. 이상욱(2015), 50면.

12) 자세한 설명은 박선이(2022b) 참조.

13) 과표의 세부 문체는 6가지다. 鄭萬朝, 『科擧及科文』, “表, 題有賀進請謝辭乞六體.”

拜·寵賚·勉戒]로 활용할 수 있는 글쓰기 틀, 당대 실제 답안을 수록했다는 점에서 작법류와 선집류에 해당한다. 다만 『儷文格式』은 과표의 세부 문체별로 작법과 당대 실제 답안을 실은 반면, 『表式』은 과표의 세부 문체별 작법을 먼저 제시한 뒤 恒用字式과 답안을 그 뒤에 실었다.

‘항용자식’은 과표에 자주 쓰이는 글자를 의미별로 묶어 놓은 것과, ‘六甲’과 ‘六十四卦’를 나열하여 실제 수험생들이 필요한 글자를 찾아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분량이 2면밖에 되지 않지만, 비슷한 의미의 글자를 분류하여 수험생들이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유초류의 성격도 조금 가미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儷文格式』은 과표의 세부 문체별로 작법과 답안의 내용을 비슷한 분량으로 실어서 전체적인 통일성을 갖추었다. 반면, 『表式』은 과표에서 출제 비중이 높은 請表·賀表·謝表 위주로 답안을 실었고, 그 답안도 시험 종류와 시기, 응시자의 이름과 등수까지 기재했다. 즉, 『表式』은 고려대 소장 과표 참고서 중에서 과표 작성의 방법과 자주 쓰이는 글자와 투식, 입격 혹은 우수한 성적을 받은 답안 등을 다채롭게 실은 문헌이라고 볼 수 있다.

Ⅲ. 『表式』의 구성상의 특징

『表式』의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表式』【신암 D5 A18】
 [干寫地末詳] : [干寫者末詳], [干寫年未詳]
 筆寫本, 1冊 : 無罨, 26.1 x 15.9 cm.

‘表式’을 표제로 한 필사본은 모두 4종으로 고려대학교(1종), 부산대학교(2종), 화성시 박물관(1종)에 소장되어 있다. 단, 표제만 동일하고 구성과

내용은 모두 다르다.

『表式』은 筆寫記나 序跋文이 없어 필사 시기나 필사자를 알 수 없다.¹⁴⁾ 본문 首面에 '薪菴文庫'라고 되어 있는데, '신암'은 金約瑟(1913~1971)의 호이며, 1974년에 1,612종 2,305책의 장서를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에 기증하면서 그것이 현재 '신암문고'로 보존되었다. 『表式』은 신암문고본 유일한 과표 참고서다. 그렇다면 구성을 통해 『表式』의 대표적인 특징을 알아보자.

1. 통일성보다 효율성 추구

『表式』은 편자 미상의 18세기 필사본이며, 다른 과표 참고서와 마찬가지로 그 투식이나 상황별 글쓰기 틀, 실제 답안에서 내용적으로 크게 차별되는 지점은 없다. 다만 그 구성을 살펴보면, 『表式』은 하나의 완결된 서적으로서 통일성을 갖추었다기보다 효율성에 초점을 두고 제작된 책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表式』을 많은 과표 참고서와 비교해야 마땅하지만, 우선 이 절에서는 같은 소장처의 작법·선집류 과표 참고서인 『儷文格式』과 비교하여 『表式』의 구성적 특징을 도출하고자 한다.

『表式』 본문 1~24면에는 표의 세부 문체인 '請表·謝表·賀表·進表·辭表·乞表'의 작법이 이 순서대로 기재되어 있다.¹⁵⁾ 조선 시대 式年試와 부정기시(謁聖試·增廣試·別試 등)에 출제된 과표는 請表와 謝表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賀表다.¹⁶⁾ 출제 빈도가 높은 순으로 특별히 작법을 기재했다는 점에서 이 책이 수험자를 고려하여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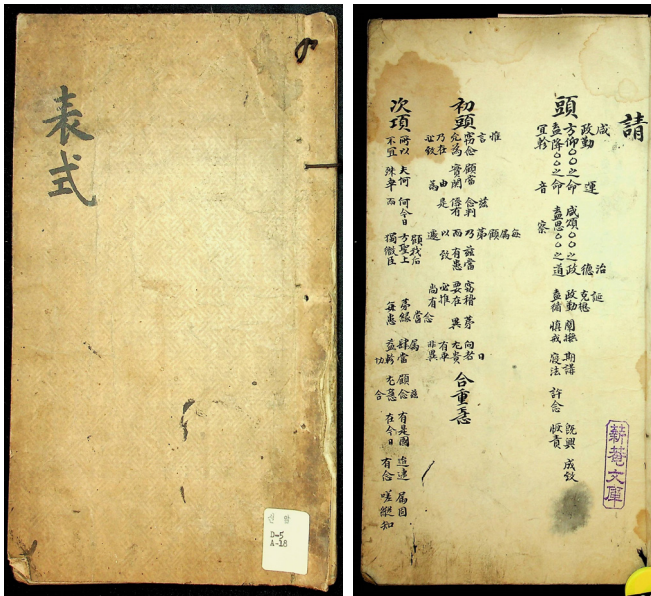
14) 여러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과시 참고서들이 대부분 편자 미상의 18세기 필사본이라는 점에서 『表式』도 그 궤를 같이 한다. 허경진·최영희(2014), 55면 참조.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 서적이 가지고 있는 형식 및 내용적 특징을 도출하여 조선 시대 과표 참고서의 전체 양상을 파악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했다.

15) 표는 기본적으로 국가에 봉직하는 신하가 왕에게 올리는 글이다. 청표는 임금에게 요청하는 글, 謝表는 임금에게 사은하는 글, 하표는 국가에 경사가 있을 때 축하하는 글, 진표는 임금에게 진언하는 글, 辭表는 辭意를 표하는 글, 결표는 내직에서 외직으로 나가길 청하거나 늙어서 관계에서 물러나기를 청하는 글이다. 이병혁(1987), 173~182면.

16) 정경주(2013), 101~101면; 박선이(2022a), 54~58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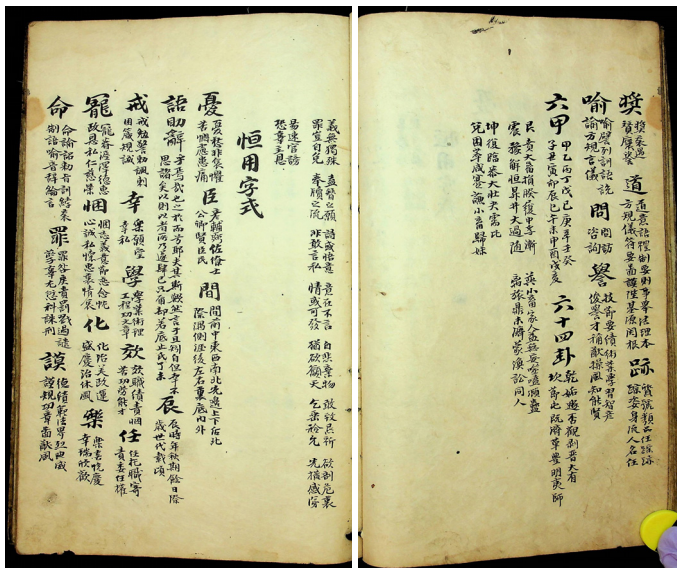
리 『儷文格式』은 '請表·賀表·進表·乞表·辭表·謝表' 순으로 기재되어 있다.

『表式』의 본문 26~39면에는 상황별 글쓰기 틀을 제시했다. 『表式』에서는 왕이 칭찬하여 가상히 여긴 데 대해 사은하는 표[謝褒嘉·謝褒獎], 작위나 벼슬을 내려주심에 대해 사은하는 표[謝封拜·謝拜封], 노력하고 경계하기를 청하는 표[請勉戒], 상서로운 조짐에 부합함을 하례하는 표[賀符瑞] 등 청표 1편, 사표 11편, 하표 1편, 진표 1편을 글쓰기 틀로서 제시했다. 즉, 『表式』은 과표에서 출제 비중이 높은 謝表 중심으로 글쓰기 틀을 제시했고, 상대적으로 출제 빈도가 낮은 결표나 辭表는 과감히 제시하지 않았다. 『儷文格式』도 출제 빈도가 낮은 진표와 결표의 상황별 글쓰기 틀은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청표·하표·謝表·辭表는 대체로 2~4편의 글쓰기 틀을 균일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儷文格式』은 수험생의 효율성보다는 하나의 서적으로서 통일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림 1> 『표식』(신암 D5 A18)의 표지(좌)와 본문 首面(우)

『表式』의 본문 25~26면에는 '恒用字式'이라고 해서, 과표에 자주 쓰이는 글자를 항목별로 분류해 놓았다. 예를 들면, 과표는 가탁된 신하의 입을 빌려 사안에 대한 본인의 감정과 내면을 전달하므로 '憂'와 같은 감정적인 글자가 많이 등장할 수 있다. 『表式』에서는 '憂'와 비슷한 의미의 글자인 '愁·非·哀·懼·苦·憫·慮·患·痛'을 제시하여 수험생이 같은 의미의 다른 글자를 변통하여 쓸 수 있도록 했다. 작법류나 선집류 과표 참고서에 이처럼 유초의 성격이 가미된 서적은 고려대 소장 자료 중 『表式』이 유일하다. 이를 통해 『表式』이 하나의 서적으로서 통일된 성격을 지녔다가보다, 수험생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인 참고서로서 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 『表式』(신암 D5 A18) 본문의 25면(좌)과 26면(우)

『表式』의 본문 40~53면에는 당대 실제 답안을 실었다. 아래 표를 보면, 정시와 알성시부터 절일제, 월과 등 다양한 과표 답안을 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작가와 작품명, 작품에서 가상으로 설정한 시대와 역사 인물, 시험 정보와 등급 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表式』에 수록된 작품 목록

| 연번 | 작가 | 작품명 | 시대 | 화자(臣)→대상(王) | 시험 | 등급 |
|----|--------------------|---------------------|----------|-------------|--------------------|----|
| 1 | 南胄寬 (1724~?) | 漢將士賀羽珣至固陵吹簫散楚兵 | 楚, 漢 | 漢將士→유방 | 月課 (1760~1766?) | 二下 |
| 2 | 柳東賓 (1720~?) | 同題 | 楚, 漢 | 上同 | 上同 | 미상 |
| 3 | 李日躋 (1683~1757) | 宋朱洙乞勿苟免於范仲淹之黨 | 宋 | 尹洙→인종 | 미상 (1722~1723?) | |
| 4 | 李埴 (?~?) | 漢故齊王田橫謝諭以大者王小者候 | 漢, 齊 | 田橫→유방 | 미상 | |
| 5 | 尹光天 (1685~?) | 周羣臣賀反風起禾歲則大熟 | 周 | 羣臣→성왕 | 菊製 (1716) | 三中 |
| 6 | 尹聖時 (1672~1730) | 漢卻正請若復問泣對思蜀 | 漢 | 卻正→劉禪 | 미상 (1705~1712?) | |
| 7 | 上同 | 皇明監察御史葉希賢請應賢字之名祝髮隨亡 | 明 | 葉希賢→건문제 | 미상 | 上手 |
| 8 | 柳萬樞 (1678~?) | 唐朝羣臣賀用魏徵仁義之言斗米三四錢 | 唐 | 羣臣→太宗 | 菊製 (1732) | 三中 |
| 9 | 李命灝 (?~?) | 秦趙蕭相如謝不治張目叱左右之罪爲一擊缶 | 秦, 趙 | 인상여→진왕 | 增廣試 (1735) | 二下 |
| 10 | 李得宗 (1718~?) | 漢卓茂謝拜褒德侯 | 漢 | 卓茂→광무제 | 謁聖試 (1746) | 三上 |
| 11 | 申思憲 (1708~?) | 虞羣臣賀籥韶九成鳳凰來儀 | 상고 시대 | 羣臣→순임금 | 庭試 初場 (1753) | 三中 |
| 12 | 南雲老 (1708~?) | 周羣臣賀躄趾爲關雎之應 | 周 | 羣臣→문왕 | 庭試 會試 (1746) | 三上 |
| 13 | 미상 | 吳賀明四目達四聰有以天下爲一身精神 | 상고 시대 | 羣臣→ 순임금 | 미상 | |
| 14 | 미상 | 周賀文王孫子本支百世 | 周 | 羣臣→ 문왕 | 미상 | |
| 15 | 미상 | 周賀思皇多士生此國王 | 周 | 羣臣→ 문왕 | 미상 | |

위 표를 보면, 『表式』에 수록된 작품은 주로 과표에서 자주 출제된 謝表와 하표이며, 청표와 결표는 각각 1편씩, 이외에 진표와 辭表는 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자주 출제되는 문체 위주로 작품을 실은 것이다.

작품에서 가상으로 설정된 시대는 주로 漢나라이며, 시험의 종류와 등급 또한 다양하다. 작자 미상의 과표 3편을 제외하고 12편의 과표는 작자와 시험 정보가 부기되어 있어 대략 언제 제출된 답안인지 유추할 수 있다. 南甯寬(1724~?)과 柳東賓(1720~?)의 「漢將士賀項羽至固陵吹簫散楚兵」은 月課 작품이라고 되어 있다. 李圭象(1727~1797)의 『并世才彥錄』 「科文錄」에 따르면 이 두 사람은 과문에 능했고, 특히 남주관은 해당 작품으로 장원에 뽑혔다고 되어 있다.¹⁷⁾ 조선 후기 월과는 정3품 미만의 신진 관료나, 40세 미만의 홍문관원이 '학습'과 '권학'의 목적으로 본 정기 시험이다.¹⁸⁾ 월과는 이미 관료가 된 자들이 보던 시험이었지만, 그 과체의 형식이 관료가 되지 않은 자들이 응시했던 과거에서의 형식과 다르지 않았다. 따라서 월과 작품도 과시 응시자들에게 참고할 만한 답안이 될 수 있었다. 남주관은 1762년에 식년시 문과에 급제한 후 1771년 사헌부 지평, 1772년 사간원 정언을 역임했는데, 일반적으로 문과 급제 이후부터 40세가 되던 해 1764년 안에 월과를 지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유동빈도 같은 시험에서 동일한 제목으로 과표를 제출했겠지만, 유동빈에 대한 기록은 자세하지 않아 유추하기가 어렵다.

다만, 이들과 같은 시기 활동했던 金龜柱(1740~1786)가 동일 제목의 표전을 지었다. 김귀주는 1760년에 음서로 참봉이 된 이후 1766년 사복시정(정3품)이 되면서 월과에서 면제됐을 것이다. 또한 김귀주는 1764년에 홍문관 교리(정5품)가 되었다. 아마도 해당 작품은 1760~1766년 사이에 부과되었을 것이다.¹⁹⁾

17) 이규상 저, 민족문화사연구소 한문분과 역(1997), 157~160면.

18) 이미진(2022), 237면.

19) 김귀주, 「擬漢群臣賀項羽至固陵吹簫散楚兵箋」, 『可庵遺稿』 권18, 『한국문집총간』 속98, 324면. 『가암유고』에서 해당 작품이 '월과' 작품이라는 표기가 없는데, 문인들이 문집에

작자와 시험 정보가 많이 부족할 경우, 작자의 대과 급제 이후와 율과 창작 가능 시기를 고려하여 시험 시기를 대략 유추해야 했다. 따라서 李日躋(1683~1757)의 「宋朱洙乞勿苟免於范仲淹之黨」은 이일제가 알성시에 급제했던 1722년 이후부터 40세가 된 1723년 사이의 작품으로, 尹聖時(1672~1730)의 「漢郤正請若復問泣對思蜀」과 「皇明監察御史葉希賢請應賢字之名祝髮隨亡」은 윤성시가 증광시에 급제했던 1705년 이후부터 40세가 된 1712년 사이의 작품으로 추정된다.²⁰⁾ 李堉(?~?)의 「漢故齊王田橫謝諭以大者王小者侯」는 작자 정보가 자세하지 않아 창작 시기를 알 수 없다. 즉, 『表式』에 실린 작품 중 작자를 파악할 수 있는 작품을 위주로 살펴본 결과, 모두 18세기 과표 작품이며, 대부분 科次에서 9등급 이상의 성적을 받은 답안이었다.²¹⁾

뿐만 아니라, 작자가 밝혀진 총 12편의 과표 작품은 賀表 6편, 謝表 3편, 請表 1편, 乞表 1편이다. 『表式』이 만약 통일성을 추구했다면 과표의 세부 문체별로 다양한 작품을 실었을 것이다. 그러나 『表式』의 목적이 수험생의 목적, 즉 시험 합격에 있었기에, 출제 비중이 낮은 문체의 작품보다는 자주 출제되는 작품을 위주로 실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²²⁾

『表式』은 과표 중에서도 출제 비중이 높은 문체에서 낮은 문체 순으로 그 투식을 기재했고, 상황별 글쓰기 틀도 출제 비중이 높은 문체 위주로 기재했다. 또한, 다른 작법 및 선집류 과표 참고서에서 볼 수 없었던 유초류 성격이 가미되었다는 점, 대부분 과차에서 9등급 이상의 성적을 받은 작품

과작을 수록할 때 과작임을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작자의 활동 시기와 이력, 표제작을 보며 이 작품이 율과 작품이라고 유추할 수밖에 없다. 이미진(2022), 241면. 김귀주의 이력은 해당 문집의 해제를 참고했다.

20) 이상의 방목 정보는 모두 『國朝文科榜目』(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106])을 토대로 한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people.aks.ac.kr)’과 『조선왕조실록』(sillok.history.go.kr)을 참고했다.

21) 科次의 9등급 성적이란, ‘上·中·下·二上·二中·二下·三上·三中·三下’를 말한다.

22) 물론 『表式』의 편자가 입수할 수 있었던 작품을 위주로 실었을 것이라는 가정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설명했듯이 『表式』의 내용이 아닌 구성 면에서 효율성을 추구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처럼, 작품을 수록할 때에도 그 의도와 목적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위주로 수록하되 출제 비중이 높은 문체의 작품을 실었다는 점에서 서적의 통일성보다는 시험 전략에 맞게 제작된 문헌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후반 단락의 투식을 풍부하게 제시

과표의 단락은 보통 '虛頭-本文-結尾'로 구성되며, '本文'은 또다시 '初項-次項-回題-結'로 나뉜다.²³⁾ 예를 들어, 『表式』과 『儷文格式』에서 謝表의 단락 구성을 보자.



<그림 3> 『儷文格式』(만송 D5 A185) 본문 22~23면(좌)과 24~25면(우)



<그림 4> 『表式』(신암 D5 A18) 본문의 6~7면(좌), 8~9면(가운데), 10~11면(우)

23) 이 단락 명칭은 참고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지만 대체적인 구성은 거의 유사하다. 본고에서는 이상욱(2017)의 논의에 따라 과표를 '허두-초항-차항-회제-결.결미'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상욱(2017), 169면.

<그림 3>와 <그림 4>에서 제시한 것처럼 『儷文格式』에서는 謝表의 단락 구성을 '頭-承短-念短-念長-初項-次項-望題-回項-結短-遇短-遇長-上下短-敢短-敢長'으로, 『表式』에서는 이를 '頭-初項-次項-回上-回題-詔句-長-結短-落句-伏遇(短句)-長-六或四-臣敢不(短句)-長-承短'으로 기재했다. '望題'와 '回上'은 次項의 결구를 뜻하며, '回項'과 '回題' 또한 '回題'라는 단락의 첫째 구를 뜻한다. 두 문헌의 단락 구성은 명칭이 상이하지만, 전체 구성은 유사하다. 두 문헌의 단락 구성을 일반적인 과표 단락에 맞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3> 『儷文格式』과 『表式』의 단락 구성 비교

| 과표 단락 구성 | 虛頭 (4-5구) | 본문 | | | | 結尾 (3-5구) |
|----------|----------------|----|-----------|-------------|-----------|-----------------------------------|
| | | 初項 | 次項 | 回題 | 結 | |
| 『儷文格式』 | 頭-承短- 念短-念長 | 初項 | 次項- 望題 | 回項 | 結短 | 遇短-遇長-上下短- 敢短-敢長 |
| 『表式』 | 頭 | 初項 | 次項- 回上 | 回題- 詔句-長 | 結短- 落句 | 伏遇(短句)-長-六或 四-臣敢不(短句)-長 -承短 |

조선 초기에는 과표의 율격을 엄격하게 지키되, 발어사의 사용이나 단구 및 장구를 구사하는 형식은 자유로웠다. 그러나 17세기 중반 이후에는 과표의 형식이 고정되기 시작했다. 4~5구가 허두에, 3~5구가 결미에 배치되고 이 부분들은 주로 해당 전고에서 직접 인용된 경우가 많았다.²⁴⁾ 본문 단락인 '초항-차항-회제-결'은 단락별로 '短-長-長'구의 형식이고, '결'부분의 마지막에 '落句'라고 해서 단구가 추가되는 경우가 많았다. 여기까지 조선 후기 과표의 대략적인 형식이다.

『表式』은 과표의 세부 문체별로 단락을 나누고, 각 단락에 들어갈 투식을 기재했다. 『儷文格式』과 비교하면, 두 문헌에서 과표의 단락 명칭은 차

24) 이상욱(2015), 139면.

이를 보이나, 대체로 형식과 그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表式』은 과표의 본문에서 후반부 단락인 '結'의 '落句'를 따로 명시했고, '結尾'의 마지막 단구도 그 투식을 풍부하게 제시했다.

<표 3>에서 진한 색으로 표시한 '念', '遇' 등은 발어사이다. 과표는 형식이 일정하여 이 발어사를 통해 단락 구분이 용이하다. 위 표를 보면, 상대적으로 『表式』은 허두를 간소하게 기재하고, 과표의 후반부인 '회제'와 '결' 부분을 세분화해서 보여주었다. '결미'는 구성면에서 『表式』과 『儷文格式』이 비슷해 보이지만, <그림 2>와 <그림 3>을 보면 투식의 양은 『表式』이 훨씬 많이 기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表式』은 상대적으로 허두 부분보다 과표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투식을 더 많이 강조한 것이다.

그렇다고 과표에서 허두가 후반부보다 덜 중요했다는 말은 아니다. 허두는 일반적으로 작품의 배경이나 사건 등을 개괄적으로 제시하고, 주로 해당 고사의 인용이 두드러진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시권을 검토해야 했던 시관들은 허두를 통해 본문의 내용과 구조를 대략 확인하고 평가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조선 후기 과표의 특징만이 아니라 조선 시대 과표의 전반적인 특성이었다.²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表式』은 허두보다 후반부의 단락을 세분화하고, 또 후반부의 단구인 '落句'나 결미의 마지막 단구인 '承短'의 투식을 매우 풍부하게 기재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시험에서 당락을 결정하는 것이, 정해진 형식에 맞는 완결성 있는 글을 써내는 것만큼이나 다른 수험생과 차별되는 지점이 있는 글을 써내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된다. 허두가 채점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은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예측 가능한 허두를 외워 쓴다면 그만큼 변별력이 없는 답안을 작성할 가능성이 있다. 수많은 답안 중에서 두각을 나타내려면 결국 그 이외의 단락에서 많은 투식을 알고 있는 것이

25) 이상욱(2015), 143면.

시험에 유리했을 것이다.²⁶⁾

게다가 조선 후기에 응시자가 증가하면서 채점에 대한 문제도 대두되기 시작했다.²⁷⁾ 채점자들은 특정한 부분을 중점으로 확인하고 점수를 매기거나, 참신한 답안보다 전체적인 완성도를 기준으로 좋은 점수를 매겼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허두의 투식을 외워 작성했다면 변별력을 낼 수 있는 부분은 그 이후가 될 것이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18세기 과표 참고서인 『表式』 또한 응시자들의 수요에 맞게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즉 『表式』은 수험생들이 실제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내용에 더 가중치를 둔 문헌이라 생각된다.

IV. 『表式』 소재 작품 양상

지금까지 고려대 중앙도서관 소장 과표 참고서를 개괄하고, 그중에서도 작법 및 선집류로서 『表式』의 구성상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表式』은 투식이나 작품이 다른 과표 참고서에서도 볼 수 있는 내용이었지만, 그 구성은 수험생에게 유리하고 효율적으로 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表式』의 구성뿐 아니라 수록된 작품 양상까지 살핀다면, 조선 시대 과표 참고서의 특징과 과문 창작의 실재를 밝히는 데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에서 살핀 대로, 『表式』에 수록된 작품은 총 15편이다. 이중에

26) 尹愾, 「科說」, 『無名子集』 책11, 『한국문집총간』 256, 472면; 李瀾, 「東坡論科試」, 『星湖先生集』 권10 참조. 이 글에서는 모두 책문에서의 ‘허두’ 부분이 정해진 투식이 있어 그걸 외워 쓰느라 과거의 폐단이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한 문제 의식이 있었던 조선 후기라는 시기를 감안해 본다면, 『표식』은 누구나 다 아는 허두의 투식보다, 그 이외의 투식을 더 많이 실었던 것이라 추측해볼 수 있다. 물론 그 이외의 투식 중 『表式』이 왜 ‘落句’와 결미의 단구인 ‘承短’를 유독 풍부하게 실었는지에 대해서는 더 고찰이 필요하다.

27) 17세기 이후 과거 응시자가 증가했지만 시관 수나 정해진 채점 시간은 거의 변하지 않아, 자연스레 채점의 부실이라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박현순(2014), 117~118면.

서 주제 구현을 위한 서술 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몇몇 작품을 분석해보고, 이를 통해 당대 과표 작성의 실재를 조금이나마 파악하고자 한다.²⁸⁾

1. 특정 이미지의 대비

과표는 對偶를 중시하는 駢儷文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병렬된 對句에서 대비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아래 인용문에서 진한 색 표시를 한 것처럼, 대구에 서로 다른 숫자를 배치하는 것이다.²⁹⁾

06

顧當垓營圍而三之日
奈無敵兵散而四之方

07

幸使七十戰未嘗北之雄 至此卒困
惟彼八千人與渡西之衆 以死相隨

-南胄寬, 「漢將士賀項羽至固陵吹簫散楚兵」

04

始藉七十城伯基 謾效兄弟之迭王
終隨五百人義士 自甘海島之孤栖

-李埈, 「漢故齊王田橫謝論以大者王小者侯」

28) 이하 전개되는 『表式』 소재의 작품 양상은 객관적인 시선에서 바라본 결과를 기재한 것이며, 해당 작품이 시험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이유를 필자가 나름대로 추측해본 것이다. 이 양상 자체가 당대의 평가는 아니라는 것을 밝혀둔다. 또한, 『表式』 소재 작품 12편의 평측을 살펴본 결과, 조선 과표에서 최소한의 평측법에 해당하는 가위림[鈇籠句末字의 평측은 한 연 내에서 상반되게 놓여 연과 연 간에도 상반되게 놓는 것]을 대체로 잘 지키고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평측에 대한 논의는 제외하기로 한다.

29) 아래 예시에서 대구 위에 적힌 숫자는 해당 작품에서 '句 번호'를 말한다. 필자는 이하 본문에서 인용문의 특정 글자 및 어구를 설명할 때, 독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용문에 '진한색'으로 표시했다.

09

啓鑰而見 中有一老師行裝
從我者誰 上寫兩沙彌法號

12

吾請自當 固知一字之相合
我從此逝 可備二臣之與同

-尹聖時, 「皇明監察御史葉希賢請應賢字之名祝髮隨亡」

02

升平四海
斗直三錢

07

惟其王化之大行 六氣調順
所以天休之丕應 五穀蕃昌

17

時和歲豐 正當聖上一治之運
化行俗美 何待大國五年之期

-柳萬樞, 「唐朝羣臣賀用魏徵仁義之言斗米三四錢」

01

觀一代之治規 方憐久棄之迹
加五等之殊典 遽荷首訪之恩

02

二字隆喪
千載佳會

03

三朝舊物
一介賤姿

13

蓋謂一世浮囂之日 粗尙純慤之風
肆以九重激勸之圖 首封疏封之典

-李得宗, 「漢卓茂謝拜褒德侯」

01

一德旁達 政仰若默之治
九韶乃成 聿觀儀鳳之瑞

06

祥翎自闕於九霄 何嘗非其時而出
希音倘協於一氣 方見爲斯世而來

09

功化崑蕩 暨六律而克諧
節奏冲融 並萬物而咸得

-申思憲, 「虞羣臣賀籥韶九成鳳凰來儀」

위와 같이 『表式』 소재 작품에는 거의 숫자를 대비시킨 대구가 보인다. 이 중에서 특히 南胄寬의 「漢將士賀項羽至固陵吹籥散楚兵」에서는 숫자를 적극적으로 대비시켜 한나라와 초나라의 기세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개요를 보자.

① 허두(1~5구): 작품 배경 설명

② 본문

②-1 초항(6~8구): 한나라에 포위되어 흩어진 초나라 병사

②-2 차항(9~11구): 고향을 그리워하며 슬퍼하는 초나라 병사

②-3 회제(12~14구): 달아나는 초나라 병사

②-4 결(15~18구): 암울한 전쟁터와 패배한 초나라

③ 결미(19~22구): 한나라의 승리에 의기양양함³⁰⁾

30) 南胄寬, 「漢將士賀項羽至固陵吹籥散楚兵」, “① 無不服自東自西自北自南 周衣一定, 有吹籥

위 작품은 『史記』의 「高祖本紀」와 「項羽本紀」의 고사를 활용했다. 楚나라 項羽가 固陵에 이르렀을 때, 張良이 통소를 붙어서 초나라 군사에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불러일으켰고, 이를 계기로 초나라 군사는 와해한다. 위 작품은 이 일에 대해 한나라 신하들이 劉邦에게 하례하는 내용이다. 남주관은 한나라에 기운 戰勢를 숫자 대비를 통해 보여주었다.

01

無不服自東自西自北自南 周衣一定 동서남북으로 복종하지 않은 자 없었
 으니 주나라 의관 하나로 정해지고
 有吹簫如怨如慕如泣如訴 楚壘四空 통소를 부니 원망하는 듯 그리워하는
 듯 우는 듯 하소연하는 듯 초나라의 진
 영이 온통 비었네

06

顧當垓營圍而三之日 해하의 진영에 포위당한 지 3일 만에
 奈無敵兵散而四之方 적병은 흩어져 사망으로 가버렸네

07

幸使七十戰未嘗北之雄 至此卒困 70번 싸워 일찍이 패배한 적 없던 영웅
 이 이에 이르러 마침내 곤경에 놓였으니
 惟彼八千人與渡西之衆 以死相隨 저 8천 명과 함께 서쪽을 건넌던 용사
 들 온통 죽음이 잇따랐네

如怨如慕如泣如訴 楚壘四空. 清商有飄, 敵陣如散. 恭定秦傳檄, 與楚爭鋒. 聞衣簫歸東之謠, 笑沐猴之愚計. 用冠玉行間之術, 去骨鯁之謀臣. 恒稱彼以暴我以仁, 咸仰寧鬪智不鬪力. [2]-1 顧當垓營圍而三之日, 奈無敵兵散而四之方. 幸使七十戰未嘗北之雄 至此卒困, 惟彼八千人與渡西之衆 以死相隨. 風吹帳中 縱傳秦若虞之曲, 雲屯壁上 尚有何多楚之憂. [2]-2 幸以金椎倡海內之謀, 乃有玉簫吹月下之舉. 簫簫送楚竹之響 爲誰聽之, 聲聲惹越枝之思 令人悲耳. 添九曲落木之恨 數聲斷腸, 激八年懷土之悲. 一時回首. [2]-3 果然側耳而聽, 相與棄甲而逃. 嗚咽烏鳴響滿秋營之月, 三三五五 景微曉天之星. 曲中之怨恨分明 旣挑狐首丘之戀, 帳下之部伍零落 無復虎傳翼之勢. [2]-4 誰知秦樓鳳吹之音, 終致楚幕鳥飛之喜. 吳天空濶 半雜歸鴈之聲, 陣雲蒼茫 競動班馬之響. 吹之未了 風中之曲兩三. 餘兵幾何 麾下之騎廿八. 悽然下重瞳哀淚, 繼而起四面楚歌. [3] 散之東西 已成崩土之勢, 剪其羽翼 何畏拔山之威. 念執鼓以從, 祗金不悔. 想南鄭夜吟之日 尚愧思東之心, 當西楚天亡之時 庶勉追北之績.”

17

吹之未了 風中之曲兩三

피리소리 미처 끝나지 않았는데 바람
결의 곡조 두세 가락

餘兵幾何 麾下之騎廿八

남은 병사 얼마이고? 휘하의 기병 28명이네

19

散之東西 已成崩土之勢

동서로 흩어졌으니 이미 무너진 영토
의 기세를 이루었고

剪其羽翼 何畏拔山之威

그 항우의 날개를 잘랐으니 어찌 산을
뽑을 만한 위세를 두려워하겠는가

허두의 1구에서는 한나라가 천하를 통일했다는 것을 '周衣'가 하나로 [-] 정해졌다고 말한 반면, 한나라와 대치한 초나라의 진영은 사방으로 비었다고 했다[四空]. '一'과 '四'를 대비시켜 전세가 한나라에 기울었음을 설명한 것이다.

초항의 6~7구에서도 숫자를 이용해 한나라와 초나라의 전투와, 초나라 군사들이 뿔뿔이 흩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초나라 군사가 포위된 지 3일 만에[三] 병사들은 사방으로[四] 흩어졌고, 70번[七十] 싸워도 진 적 없던 항우의 8천 명의 병사들은[八千],³¹⁾ 결국 전쟁에서 죽고 만다. 초나라 군사가 패배하는 과정과, 강인했던 군대의 수많은 병사들이 모두 죽게 되었다는 극적인 내용을 숫자로 구체화한 것이다.

결의 17구에서는 전투에 지친 초나라 병사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한 장량의 피리 소리를 언급하며, 곡조는 희미해져 '두세 가락[兩三]' 밖에 남지 않았고, 남은 병사는 '28명[廿八]' 뿐이라고 했다. 초나라가 전투에서 패배했음을 숫자를 통해 보여준 것이다. 이 내용은 19

31) 항우가 "내가 군사를 일으킨 지가 지금까지 8년인데, 그동안 70여 차례나 싸우면서 일찍이 패한 적이 없어 드디어 천하의 패권을 차지하였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곤궁하게 된 것은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한 것이지, 내가 싸움을 잘못해서가 아니다." 하고는, 남은 군사들과 함께 결사적으로 싸워 겨우 포위를 벗어날 수가 있었다. 『史記』卷7 「項羽本紀」 참조.

구에서 초나라 병사들이 흩어져 항우가 유방에게 패했음을 나타내는 ‘剪其羽翼’으로 연결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살펴볼 작품은 李埈의 「漢故齊王田橫謝諭以大者王小者侯」이다. 개요를 보자.

- ① 허두(1~4구): 왕에 대한 감사, 자신의 처지 설명
- ② 본문
 - ②-1 초항(5~7구): 죄가 커서 부끄러운 마음
 - ②-2 차항(8~10구): 지난날을 후회하며 좌절함
 - ②-3 회제(11~13구): 왕의 은혜를 입게 됨
 - ②-4 결(14~17구): 황송하게 뜻을 받들고자 함³²⁾

齊나라 田橫은 제나라 왕인 자신의 형 田榮이 항우의 공격으로 죽자, 패잔병들을 모아 항우에게 맞서면서 아들 田廣을 제왕으로 세우고 자신은 승상이 되어 권력을 잡은 일이 있었다. 한나라 장수 韓信과 灌嬰의 군대에 전광이 죽자 전횡은 스스로 왕이 되어 관영의 군대에 맞서다가 彭越에게 의탁했다. 얼마 후 한 고조가 천하를 통일하자, 전횡은 주살될까 두려워 500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海島로 들어간다. 한 고조가 사신을 보내 “전횡이 오면 크게는 왕으로 삼고, 작게는 侯로 봉하며, 오지 않으면 군대를 보내 도륙하겠다.”고 했다. 위 작품은 이 일을 배경으로 한 것이다. 전횡은 한 고조의 제안에 “내가 처음에 漢王과 같이 남면하여 孤라고 칭했는데,

32) 李埈, 「漢故齊王田橫謝諭以大者王小者侯」, “[1] 念切追愆 竄影悔而畏約, 恩深疏句 降溫諭而招來. 何心享茅, 無面渡海. 念全齊舊緒, 大漢通踪. 始藉七十城伯基 謾效兄弟之迭王, 終隨五百人義士 自甘海島之孤栖. [2]-1 嗚味帝王之有眞, 自多前後之速戾. 乘時據南面之位 愧已源於盜名, 擁兵拒東下之師 罪亦大於殺使. 聖度至大 豈乏歸慈母之誠, 舊愆自追 實無見天子之面. [2]-2 故切人間道窮之歎, 遂決海外自竄以圖. 往事驚心 自兮窮島之爲庶, 故國回首 謾笑向時之稱孤. 伯業已虛 猶甘處松柏之辱, 世念都盡 無復駢蹄繩之望. [2]-3 不圖逃海之危蹤, 遽承自天之溫命. 滌舊瑕於烹使 殷勤來汝之音, 指新榮於兮茅 丁寧封若之意. 家亡國破 曲釋海中之連迹, 小侯大王 故許格外之恩寵. [2]-4 雖盛聖諭之遠辱, 益覺私心之多慚. 遂鹿初心, 已盡入窮冥之日, 刑馬新誓 敢賤賞元功之班. 念雍齒之且侯 匪昧大度之莊秩, 顧鬪商之猶在 何安清朝之比肩. 撫躬周章, 拜命踟躕.”

이제 와서 북면하여 섬길 수는 없다."라며 자결했다. 이 소식을 들은 섬의 500명도 한꺼번에 자결했다.³³⁾

이 작품은 화자인 전황이 "우리에게 오면 크게는 왕으로 삼고 작게는 후에 봉하겠다[以大者, 王小者]"라고 말해준 유방에게 사례하는 표다. 사표는 조정의 기강을 세우고 사회 기풍을 진작하려는 군주의 포부와 도량을 드러내야 하며, 신하의 처지를 배려하고 생민의 안정을 염려하는 군주의 덕성을 찬양해야 한다.³⁴⁾ 이육은 임금의 뛰어난 성품과 도량을 드러내기 위해 자신의 어리석음과 유방의 현명함을 대비시켰다.

01

念切追愆 竄章悔而畏約

생각건대 절실히 허물을 반성하며 드러난 후회를 숨겨 움츠러들고

恩深疏句 降溫諭而招來

은혜 깊어 말을 트이게 하고 따뜻한 유지를 내려주어 불러 오게 하셨으니

05

頃昧帝王之有真

잠깐 제왕의 참된 마음을 보지 못하고

自多前後之速戾

전후로 속히 어그러짐이 절로 많았으니

07

聖度至大 豈乏歸慈母之誠

성스러운 도량이 지극히 크니 어찌 자모의 정성에 돌아가고픈 생각이 없겠습니까

舊愆自追 實無見天子之面

옛 허물을 스스로 돌이켜보건대 실로 천자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11

不圖逃海之危蹤

바다로 도망가 위태롭게 돌아다닐 생

33) 『史記』 권94 「田儋列傳」 참조.

34) 정경주(2013), 109~110면.

遽承自天之温命 작은 없었는데
 갑자기 천자로부터 따스한 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14
 雖盛聖諭之遠辱 비록 성스런 깨우침에 욕됨을 멀리하
 게 됨이 많은데
 益覺私心之多慚 더욱 사심에 많은 부끄러움을 깨닫게
 됩니다

전황은 스스로 '후회[悔]', '허물[愆]', '어그러짐[戾]', '사심[私心]'으로 본인의 어리석음을 고백하고, 이와 반대로 자신에게 넓은 아량을 베풀어준 유방에 대해서는 '따뜻한 유지[溫諭, 溫命]', '참된 마음[眞]', '성스러운 도량[聖度]', '성스러운 깨우침[聖諭]'으로 왕의 현명함을 부각시켰다.

변려문 형식의 과표에서는 대구를 이루는 이미지를 많이 쓰지만, 위에서 살펴본 작품에서는 작품의 주제, 의탁한 신하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특정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대비시켰다고 볼 수 있다.

2. 특정 이미지의 부각

과표는 주로 중국의 역대 고사에 나온 인물을 화자로 설정하고, 특정 상황을 가정한다. 고사의 내용을 적절히 인용하며 실감나게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사의 모든 내용을 다 인용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 과표는 세부 문체별로 목적이 뚜렷한 글이기 때문에, 특정 이미지를 선택해 주제를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남주관의 「漢將士賀項羽至固陵吹簫散楚兵」에서 통소 소리는 초나라 군사의 전의를 상실케 하는 수단으로, 해당 표문에서 반복되는 이미지 중 하나이다.

01

無不服自東自西自北自南 周衣一定
有吹簫如怨如慕如泣如訴 楚壘四空

동서남북으로 복종하지 않은 자 없었
으니 주나라 의관 하나로 정해지고
통소를 부니 원망하는 듯 그리워하
는 듯 우는 듯 하소연하는 듯 초나라
의 진영이 온통 비었네

02

清商有飄
敵陣如散

맑은 소리 휘날림에
적진이 흩어지는 듯

허두의 1~2구는 비로소 초나라의 군사가 흩어지게 되었다는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통소 소리는 초나라 군사들에게 고향에 대한 그리운 정서를 일으킨 계기며, 이로 인해 초나라 군사들이 전의를 상실해 뿔뿔이 흩어진다. 1~2구에서 통소 소리의 이미지[吹簫, 清商]가 반복 등장하여 작품의 배경을 강조하고, 멀리 퍼져나가는 소리는 곧 흩어지는 군사들의 모습과 연결된다.

09

幸以金椎倡海內之謀
乃有玉簫吹月下之舉

철퇴로 천하를 도모하는 일 일으켰더니
이제 옥피리 가락 달빛 아래 울리는구나

10

簫簫送楚竹之響 爲誰聽之
聲聲惹越枝之思 令人悲耳

쓸쓸히 초나라의 음향 들려오니 누구
보고 들으라는 것인가?
소리소리 고향 생각, 사람을 슬프게 하구나

11

添九曲落木之恨 數聲幽揚
激八年懷土之悲 一時回首

구곡에 낙엽 지는 원한 사무치니 몇 곡
조 창자를 예이고
팔년 객지에서 향수의 걱정으로 일시
에 모두 머리를 돌리누나

12

果然側耳而聽
相與棄甲而逃

과연 귀를 기울여 듣더니
서로 더불어 갑옷 벗어던지고 도망가네

13

啾啾鳴鳴 響滿秋營之月
三三五五 影散曉天之星

호느끼고 목메는 소리 가을 진영의 달
빛 아래 가득하고
삼삼오오로 달아나는 그림자 새벽 하
늘 별빛 아래 흩어지네

차함과 회제에 해당하는 9~13구에서는 슬피 울려 퍼지는 통소 소리와, 소리가 퍼져나가듯 뿔뿔이 흩어지는 군사들의 모습이 구체화되고 있다. 9~10구에서는 장량이 통소 소리를 내어 군사들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장면이다. 11구에서는 그 소리를 좀 더 구체화하는데, 낙엽 지는 원한이 곡조에 묻어나 실제로 장수들이 전의를 상실하는 부분이다. 통소 소리는 군사들의 마음을 동요하여 호느끼는 소리를 불러내는데, 통소 소리가 군사들의 울음소리로 치환되어 슬픔을 고조시키고, 이는 군사들이 갑옷을 던지고 달아나[逃] 흩어지는[散] 모습으로 형상화된다. 통소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과 군사들이 흩어지는 것은 인과 관계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남주관은 멀리 퍼질 수 있는 소리의 속성을 군사들이 더 이상 전쟁에 임하지 않고 흩어져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17

吹之未了 風中之曲两三
餘兵幾何 麾下之騎廿八

피리소리 미처 끝나지 않았는데 바람
결의 곡조 두세 가락
남은 병사 얼마인가? 휘하의 기병 28명이네

18

悽然下重瞳哀淚
繼而起四面楚歌

처연히 중동(항우)의 슬픈 눈물 떨어지고
연이어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 일어나네

‘결’에 해당하는 17~18구에서는 바람결에 들려오는 곡조 두세 가락을, 휘하에 남아있는 기병에 비유하여, 이미 와해 직전에 이른 초나라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8구는 유방이 垓下에서 항우를 포위하고 군사들에게 초나라 노래를 부르게 하자, 항우는 전세가 기울었음을 알고 달아나 자결하는 장면이다. 이는 성어 ‘四面楚歌’의 배경이 되는 대목이다.³⁵⁾ 남주관은 패배를 의미하는 항우의 눈물을 소리 이미지인 楚歌와 연관시켜 하나의 작품이 일정한 이미지로 통일되게끔 표문을 작성한 것이다.

李日躋의 「宋朱洙乞勿苟免於范仲淹之黨」에서는 尹洙가 范仲淹의 무리를 구차하게 면하지 않고 관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올린 일을 의작한 작품이다.³⁶⁾ 송나라 범중엄은 仁宗 때 呂夷簡에게 국정의 폐단을 지적했다가 좌천되었는데, 당시에 歐陽脩·尹洙·余靖 등이 그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당인으로 지목받았다. 이 작품은 그 일을 배경으로 한다. 개요를 보자.

- ① 허두(1~4구): 관직을 떠나게 되었음을 알림
- ② 본문
 - ②-1 초항(5~7구): 범중엄의 불우함, 범중엄과 자신의 관계
 - ②-2 차항(8~10구): 범중엄의 폄적됨을 아쉬워하고, 자리에 머문 자신을 부끄러워함
 - ②-3 회제(11~13구): 범중엄의 무리를 면하려고 하지 않음
 - ②-4 결(14~17구): 다시 한번 범중엄의 무리를 면하려고 하지 않음³⁷⁾

35) 『史記』 권7 「項羽本紀」 참조.

36) 제목의 ‘朱洙’는 ‘尹洙’를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宋史』 「范仲淹列傳」 참조.

37) 李日躋의 「宋朱洙乞勿苟免於范仲淹之黨」, “① 直臣坐言事去官 方切慨惜之惘, 君子以同道爲黨 蓋察企仰之誠 義無獨殊 罪豈幸免 念河南賤土 館中庶僚 偉哉歎陽城之言 每爲心壯 慨然讀范滂之傳 或至流涕. ②-1 言念仲淹之忠賢 卽是小臣之師友 平生勉以忠節 亦嘗任天下之憂 半世慣於追隨 不獨爲朝中之好 雖賢愚之闊絕 不啻企松之蒿 然出處之略符 殆若依蛭之距. ②-2 豈意韓刺史之遠貶 漫作張舍人之獨留 危言觸口 反遭共黨之目 微宗保位 多慚并遊之顏 萬里眞巖市 尙喜仁義之載半 一生欣慕 敢望禱福之思均. ②-3 肆將願司歸之忱 輒進無苟免之說 黨巢方設 固自甘於并偏 禍網彌驅 寧有冀於獨漏 心切期管鮑之許 未嘗殊途 名雖慚李杜之齊 猶堪同傳. ②-4 惟常情孰不願助於免禍 顧微忱奈自切於景賢 彼誠有辜 固直被收坐之律 臣雖無狀 豈敢懷苟容之心 他人之景仰亦深 矧在吾輩 平日之交誼既厚 忍負窮途 吾所願從 惟幸皇甫規之得與 人皆欲善 詎容蓬伯玉之獨爲.”

이일제가 시제에 맞게 표문을 작성하려면, 윤수가 범중엄의 무리가 아니라고 비겁한 태도를 취하기보다는 그의 무리임을 밝히고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이일제는 역사 속에서 당인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 청렴하게 공무에 전념했던 인물을 동원하는 방식을 택했다.

03

念

河南賤士

館中庶僚

하남의 천한 선비이며

관에 있는 일반 관리이니

04

偉哉歎陽城之言 每爲心壯

慨然讀范滂之傳 或至流涕

위대하구나 양성의 말에 감탄하여

매번 마음이 웅장해지고

개연히 범방의 이야기를 읽고 혹 눈

물을 흘리누나

08

豈意韓刺史之遠貶

漫作張舍人之獨留

어찌 한 자사가 멀리 폄적됨을 생각이

나 했을까

부질없이 장 사인이 홀로 남겨질 것을

쓰네

13

心切期管鮑之許 未嘗殊途

名雖慚李杜之齊 猶堪同傳

마음은 관중과 포숙아의 허여함을

질실히 기약하여 일찍이 다른 길인

적 없었네

이름이 비록 이백과 두보의 무리에

부끄럽지만 오히려 같이 전해지기를

감당하네

17

吾所願從 惟幸皇甫規之得與

내 따르길 바라는 바는 오직 다행히
도 황보규의 허여함이며

人皆欲善 詎容邊伯玉之獨爲

사람들은 모두 선하고자 하니 어찌
거백옥이 홀로 군자가 됨을 부끄러
위한 것을 허용하겠는가?

허두의 3~4구에서는 운수가 자신을 소개하면서 청렴하고 의리가 있었던 陽城과 范滂의 고사를 동원했다. 양성은 당 덕종 때 간의대부가 되고 7년 동안이나 간쟁을 하지 않다가, 덕종이 陸贄를 내쫓고 裴延齡을 재상으로 삼자 그제야 "배연령을 재상으로 삼으면 신이 의당 조서를 취하여 찢어 버리겠습니다."라고 직언하여 裴延齡의 임명을 막았다.³⁸⁾ 後漢의 范滂은 冀州 刺史로 부임할 때 말고삐를 잡고서 천하를 맑게 할 뜻을 품었기에, 임지에 도착하자마자 탐관오리들이 그 풍도를 듣고는 인끈을 풀어 놓고 떠나갔다는 고사가 전해진다.³⁹⁾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본 작품에서 가탁된 인물인 '운수'가 눈물 흘리는 것은, 자신이 관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본인의 잘못이라기보다 이 역사 속 인물들처럼 청렴하고 의리가 있기 때문임을 말하려는 것이다.

차항의 8구에서 '韓刺史'는 불교를 비판하다 潮州 자사로 폄적되었던 韓愈를 가리킨다. 작품에서는 직언하다가 좌천된 범중엄을 한유에 비유했다. '張舍人'은 쯤나라 때 강동의 吳中 사람인 張翰으로, 洛陽에서 벼슬하다가 천하가 어지러운 것을 보고 고향의 순채국과 농어회가 생각나서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한다.⁴⁰⁾ 작품에서는 복잡한 세사를 피해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장한에 스스로를 비유하여, 범중엄의 무리임을 인정하고 복잡한 정치에 휘말리기보다 사직하는 길을 택하는 운수의 심

38) 『新唐書』 「陽城列傳」 참조. 배연령은 천성이 가혹하고 아래사람을 수탈하여 위사람에게 아첨하며 술수에 능했다고 전해진다. 『唐書』 권167 「裴延齡傳」.

39) 『後漢書』 「黨錮列傳」 참조.

40) 『舊唐書』 권160 「韓愈列傳」; 『晉書』 「文苑列傳」 참조.

정을 완곡히 표현했다.

회계의 13구에서는, 윤수와 범중엄의 관계를 관중과 포숙아의 우정에 비유했다. 윤수와 범중엄이 결국에 사직하거나 좌천되지만 이백과 두보 처럼 길이 전해지기를 소망하고 있다.

결의 17구에서는 後漢 때 명장인 皇甫規를 거론한다. 그는 桓帝 때에 黨獄이 크게 일어나 명현들이 모두 연좌되어 체포되었는데, 자신이 이 당옥에 연좌되지 않은 것을 크게 부끄럽게 여겨, 오히려 자신도 당옥에 연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⁴¹⁾ 이는 같은 길을 택한 작품 속 화자인 윤수를 비유한 것이다. 거백옥은 춘추 시대 衛나라의 대부로, 50세에 지난 49세 동안의 잘못을 알았다고 말하며 늙어서도 항상 자신의 지난날을 반성하면서 지금까지의 잘못을 뒤우치고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려고 했던 인물이다.⁴²⁾ 즉, 윤수는 거백옥에 자신을 비유하여, 범중엄의 무리임을 면하려고 하지 않고, 그의 당인으로서 처할 운명을 스스로 감당할 것을 표현한 것이다.

역사 속 인물에 가탁하여, 역사적 상황을 설명하고 그 상황에 맞는 의례적 사안을 왕에게 전하는 표문의 특성상, 역사 속 인물과 관련된 고사는 흔히 나올 수 있다. 다만, 이일제는 윤수와 범중엄의 상황과 비슷한 역사 속 인물을 다수 동원하여, 범중엄의 청렴함과 윤수의 의리 있음을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작품은 尹光天의 「周羣臣賀反風起禾歲則大熟」이다. 개요를 보자.

① 허두(1~5구): 주공의 공이 널리 알려지지 못함

② 본문

②-1 초항(6~8구): 참소로 인해 주공의 공이 가려짐

②-2 차항(9~11구): 재앙이 닥침

41) 『後漢書』 「皇甫規列傳」 참조.

42) 『淮南子』 「原道訓」; 『後漢書』 권97 「黨錮列傳」 참조.

②-3 회제(12~14구): 주공의 덕이 드러남

②-4 결(15~17구): 바람이 거꾸로 불어 벼가 일어나게 됨

③ 결미(18~22구): 태평성대를 찬양함⁴³⁾

위 작품은 『書經』 「金縢」에 나온 고사를 토대로 쓴 것이다. 武王이 죽고 成王이 즉위했을 때 무왕의 동생인 管叔과 그의 여러 아우들이 유언비어를 퍼뜨려 周公이 어린 성왕에게 불리한 행동을 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성왕 역시 이를 의심하자 주공이 동쪽 교외에 나가 지냈다. 그 후 2년 만에 유언비어를 퍼뜨린 범인을 잡았으나 주공은 아직 동쪽에 있었다. 그해에 풍년이 들었다가 아직 수확하기 전에 우레가 치고 바람이 불어 벼가 모두 쓰러지고 큰 나무까지 뽑혀 나갔다. 그때서야 성왕이 금등을 열고 주공이 예전에 무왕이 아플 때 대신 죽겠노라고 맹세한 글을 보고서 주공의 원래 뜻을 알아 친히 교외에 나가 주공을 맞아들이니, 비가 오고 바람이 거꾸로 불어[反風] 쓰러졌던 벼들이 다시 일어나 큰 풍년이 들었다고 한다.

이 작품은 화자인 주나라 신하들이 성왕에게 주공의 공으로 인해 풍년이 든 것을 축하하는 표다. 하표는 국가와 민생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이나 특별한 조치와 관련하여 이를 축하하고, 군주의 미덕과 국가의 장래를 축도하는 내용을 주로 쓴다.⁴⁴⁾ 그렇기 때문에 작품 속에서 풍년이 든 결과보다는, 풍년이 들도록 만든 원동력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43) 尹光天, 「周羣臣賀反風起禾歲則大熟」, 「^①宸情鬱陶 邁返東山之鳥, 喜氣譁揚 勃興南畝之禾. 如日之更, 知風以自. 顧惟周公之請命, 實在寧考之違和. 至誠上通 啓龜兆而并吉, 列聖俯格 越翼日而即瘳. 功雖大於宗祏 公不自有, 事則藏於祝史 人無敢言. ②-1 不圖隱几之音才承, 遽致沉舟之譖罔極. 石室金積 誰察代某之忱誠, 袞衣繡裳 久淹避譖之蹤跡. 日星暫晦 詠跋蹇而誰憐, 天地共鑑 查精忠而上薄. ②-2 乃季秋之月, 忽大雷而風, 萬竅怒號 知華氣之攸致, 四郊披靡 歎穡事之卒辛. 顧災祥之有隨 至微且著, 念風雷之垂象 胡懼莫徵. ②-3 肆當啓策之辰, 乃有執書而立. 使大老而久遷 抑獨何心, 警一人而疾威 實彰其德. 綸音誕發 感王室之勤勞, 玉趾親臨 尊國家之典禮. ②-4 居然郊迎之際, 幸致風反之休. 卽日以還 謁聖意而敦復, 從天而降 轉災診爲休祥. 甘霖祥纒 隨法駕而遍洒, 嘉穗美穎 乘惠氣而齊蘇. ③ 藉其鼓舞之權, 復我豐登之慶. 六轡臨野 還似桑林之儀, 一德享天 俄消祥穀之變. 田中收溝箒之富 慰洽三農, 殿上奏阜財之歌 喜動八彩. 始以親愛之過 暫容流音, 終爲轉移之機 斯捷如響. 天人相與, 朝拜同歡.”

44) 정경주(2013), 101면.

이 작품에서 그 원동력은 바로 '反風'이며, 이는 곧 주공의 공덕을 인정한 하늘의 뜻을 대변한다.

02

如日之更
知風以自

해가 바뀌는 것처럼
바람이 일어나는 곳을 아네

09

乃季秋之月
忽大雷而風

이에 늦가을의 달
갑자기 크게 천둥이 쳤다가 바람이 부네

11

顧災祥之有隨 至微且著

念風雷之垂象 胡憚莫徵

돌아보건대 재앙과 복에 이롭이 있으면
지극히 미미해도 드러나고
생각건대 바람과 천둥이 현상으로 나타나니
어찌하여 일찍 징계하지 않는가

15

居然郊迎之際
幸致風反之休

거연히 교외에서 맞이하는 사이에
다행히도 바람이 거꾸로 부는 아름다움에 이르렀네

17

甘霖祥飈 隨法駕而遍洒

嘉穗美穎 乘惠氣而齊蘇

단비와 상서로운 바람이 법가를 따라
두루 깃들었으며
아름다운 이삭이 은혜로운 기운을 타고
일제히 소생하네

22

天人相與
朝野同歡

하늘과 사람이 서로 어울리고
조정과 민간이 함께 기뻐하네

허두의 2구에서는 『중용장구』 제33장의 “먼 곳이 가까운 곳에서 시작 된다는 것을 알고, 바람이 일어나는 곳을 알며, 은미함이 드러나는 것임을 안다[知遠之近, 知風之自, 知微之顯.]”을 인용하여 풍년이 든 이유가 주공에게 있음을 던지시 드러낸다.

차항의 9~11구에서는 태평성대가 오기 전까지 고난과 재앙이 있었음을 ‘큰 천둥[大雷]’과 ‘바람[風]’으로 나타냈다. 특히 11구에서는 예부터 인간사의 재앙과 복은 천둥이나 바람처럼 자연현상으로 나타난다고 말한다.

결의 15, 17구에서 주공의 공덕으로 인해 ‘바람이 거꾸로 불어[反風]’ ‘단비와 상서로운 바람[甘霖祥飈]’이 나타나기 시작했음을, 이로 인해 이삭이 소생했다고 말한다. 즉 태평성대가 찾아온 것이다. 윤광천은 주나라 신하들이 태평성대가 온 것을 성왕에게 축하드릴 때, 그 원인이 되어준 ‘反風’이 곧 주공의 공덕을 인정한 하늘의 뜻임을 암시했고, 바람의 이미지를 반복해서 제시하여 주제를 강조했다. 이는 결미의 22구에서 하늘과 사람이 서로 어울리고, 조정과 민간이 함께 기뻐하는 결과로 나타난다. 주공의 공덕을 의미하는 ‘反風’은 곧 하늘의 뜻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바람의 이미지를 앞에서 많이 반복하여 부각시켰기 때문에, 마지막 구에서 하늘의 뜻과 사람의 일이 결국 조화를 이루게 되었음을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V. 나가며

지금까지 고려대 중앙도서관 소장 신암문고본 『表式』의 구성상의 특징과, 소재 작품 양상을 살펴보았다. 『表式』은 고려대 중앙도서관 소장 과시자료 중 과표 참고서 12종에 해당하면서, ‘작법’과 ‘선집’류 참고서이자, 적게나마 ‘유초’의 성격도 가미된 독특한 문헌이다.

본고에서는 『表式』의 특징을 더 분명히 하기 위해 같은 소장처의 작법

및 선집류 과표 참고서인 『儷文格式』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表式』은 『儷文格式』에 비해 하나의 서적으로서 통일성을 추구했다기보다 수험생의 편리함과 효율성을 더 중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이유로 첫째, 『表式』은 실제 조선 과시에서 출제 비중이 높은 순으로 과표 세부 문체의 작법을 실었다. 둘째,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한 허두의 투식을 간소화하고, 시험에서 변별력을 낼 수 있도록 그 이외의 투식을 더 풍부하게 실었다. 셋째, 수험생이 비슷한 의미의 글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항용자식을 실었다. 넷째, 주로 과차 9등급 이상의 작품을 실어 수험생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表式』에는 총 15편의 과표 답안이 실려 있는데, 본고에서는 몇몇 작품을 주제 구현을 위한 서술 방식에 초점을 두고 분석했다. 그 결과, 『表式』 소재 작품에서는 특정 이미지를 대비시켜 작품 속 상황을 더 극적으로 재연하고, 작품의 의도를 강조하려고 했다. 한편으로는 특정 이미지를 작품 속에서 반복 등장시켜 그것을 부각함으로써 작품의 완결성을 꾀했고, 화자의 심정을 대변했으며 주제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려고 했다.

본고는 고려대 중앙도서관 소장 과표 참고서 중 하나인 『表式』의 구성과 내용을 밝혀, 형식 연구에만 치우친 과시 연구를 보완하고자 했다. 비록 『表式』의 필사 시기나 필사자를 알지 못하고, 당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는지 밝힐 순 없었지만 이 문헌의 연구를 통해 조선 후기 과표 참고서의 한 단면을 조금이나마 파악할 수 있었다. 앞으로 고려대 소장 과표 참고서뿐 아니라 다양한 도서관에 소장된 과표 참고서를 아울러 살피고 서로 비교해본다면, 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것은 추후 과제로 남긴다.

〈參考 文獻〉

1. 원전 자료

- 『科文』,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본[대학원 D5 A231]
『東儷』,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본[만송 D5 A36]
『東林』,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본[만송 D5 A191]
『鳴波』,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본[만송 D5 A28]
『賦抄』,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본[만송 D5 A176]
『寫表式』,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본[대학원 D5 A1]
『儷文格式』,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본[만송 D5 A185]
『儷體』,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본[대학원 D5 A229]
『龍門』,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본[대학원 D5 A230]
『表東』,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본[대학원 D5 A3]
『表東人』,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본[만송 D5 A125]
『表式』,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본[신암 D5 A18]
김귀주, 『可庵遺稿』, 『한국문집총간』 속98, 한국고전번역원.
이의현, 『陶谷集』, 『한국문집총간』 181, 한국고전번역원.
이규상(1997), 『18세기 조선 인물지』, 민족문화사연구소 한문분과 역, 창작과비평사.

2. 연구 논저

- 노요한 외 3인(2022), 「고려대 중앙도서관 만송문고 소장 과시 자료 소개」, 『한문학논집』 제62권, 근역한문학회, 7~66면.
박선이(2019), 「조선 후기 科文의 실체에 관한 일고찰-『東儷文』과 『儷林』에 수록된 科表를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제80호, 동양고전학회, 99~127면.
박선이(2022a), 「肅宗-正祖代 科策과 科表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선이(2022b), 「조선 후기 科試 참고서 『表東人』에 관한 일고찰」, 『한문학논집』 제62권, 근역한문학회, 93~112면.
박현순(2014), 『조선 후기의 과거』, 소명출판.
송채은(2022), 「고려대 중앙도서관 만송문고 소장 科表抄 『東林』에 대하여」, 『고전과

- 해석』 제37집, 고전문학한문학회, 259~275면.
- 이미진(2022), 「雪峯 姜栢年の 表를 통해 본 조선시대 月課 창작의 일단면」, 『고전과 해석』 제36집, 고전문학한문학회, 231~268면.
- 이병혁(1987), 「과문의 형식고(II)-표·책을 중심으로-」, 『동양한문학연구』 제2집, 동양한문학회, 169~192면.
- 이상욱(2015), 「조선 과문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상욱(2017), 「조선 후기 科表의 문체적 특징과 글쓰기」, 『대동한문학』 제53권, 대동한문학회, 159~193면.
- 정경주(2013), 「科文 表箋의 형식과 문체의 특성」, 『대동한문학』 제39권, 대동한문학회, 83~125면.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

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총간』, <http://db.itkc.or.kr>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

Abstract

*A Study on Gwapyo Test Books 『Pyosik(表式)』
-Focusing on the Shinam Collection of Korea University Library-*

Lee, Miji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composition and work aspects of 『Pyosik(表式)』, a type of Gwapyo test books from the Joseon Dynasty, to understand the Joseon civil test reference books and the reality of Joseon civil service examinations. In exams, Gwapyo was a very important subject, and for candidates of the time, practicing Gwapyo writing was the key to success or failure in the exam. Among the 255 types of Joseon civil service exam-related materials stored in the Korea University library, there are a total of 12 Gwapyo test books, and among them, 『Pyosik(表式)』 is different from other Gwapyo test books.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composition of this book, 『Pyosik(表式)』 included writing methods for Gwapyo, which were mainly focused on those with a high proportion of questions. This book also includes 'frequently used letters' so that candidates can easily find letters with similar meanings. In addition, this book mainly contains works with a grade of 9 or higher, allowing candidates to effectively prepare for the exam. In addition, the common 'Heodu(虛頭)' formula was simplified and other formulas were presented in greater abundance so that candidates could make a difference in the actual test. This can be seen as focusing on the convenience and efficiency of the candidates rather than on completeness as a book.

This paper also analyzed the aspects of this book. As a result, the works contrasted specific images within rhyming couplet to dramatize fictional situations and emphasize themes. In addition, the works repeatedly featured certain images, such as sounds or historical figures, to keep the work's completeness in mind, represent the author's feelings, and present the theme persuasively.

* Research Professor, Institute for Sinographic Literatures and Philology, Korea University / leemijin@korea.ac.kr

【Key words】 Gwashi, Examination Prose, Gwapyo, Gwapyo Test Book, Pyosik

투고일 : 11월 10일, 심사완료일 : 12월 16일, 게재확정일 : 12월 25일

